

오피니언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뷰

경제의 눈

문화향기

21세기형 노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 윤 희

똑같은 시련에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 가령 실직을 했다고 하자. A는 끔찍한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B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 나선다.

그녀가 살아가는 모습은 거센 바람,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흔쾌하게 이겨내는 갈대를 닮았다. 그녀에게 시련은 바람이다. 갈대는 거센 태풍에도 흔들릴 뿐 부러지지 않는다.

그녀가 살아가는 모습은 거센 바람,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흔쾌하게 이겨내는 갈대를 닮았다. 그녀에게 시련은 바람이다. 갈대는 거센 태풍에도 흔들릴 뿐 부러지지 않는다.

삶의 바람이 불 때마다, 역경에 처할 때마다 그녀는 갈대처럼 유연해진다. 그래서 자기를 3m쯤, 저만치 떨어뜨려 바라보다. 부드럽게 휘어지면서 강렬하게 춤을 추는 것이다.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멀리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자기의 현실 밖으로 나가는 초현실적 특성은 그녀가 타고난 천성이기도 했다. 현실 속에 들어가서 100% 체감하고 살았다면 아마도 그녀는 지금 존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미 옛날 옛적에 세상을 떠나야 했을 것이다.

그녀의 현실은 도자기를 굽는 가마처럼 1천 300도가 넘는 활활 불속이었다.

파카소의 그림처럼 난해하고 17세기의 전설처럼 그로테스크한 시택식구들과의 한 지붕 삶~, 자식을 저주하고 귀신이 되어서까지 너를 못살게 하리라는 초상식적 시어머니의 괴팍함은 오히려 그녀를 '도인' 수준까지 끌어올린 주술로 승화되었다.

1 : 1로 같이 맞받아 싸우고 뒤엎었다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녀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렸다. 마치 산소 호흡기를 자신에게 씌워주듯 일에 몰두했다. 그녀에게겐 미래를 내다보는 남다른 통보기가 장착되어 있었다.

정보사회가 급속도로 다가올 것을 예견하고 사무실도 없이 일을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유행하는 SOHO형식의 벤처기업인 셈이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 책, 인터넷, CD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자 유익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이 그녀가 하는 일.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요즘시대에 이미 10년 전부터 그런 일을 시작했으니 그녀의 시대감각은 탁월하다 아닐까 싶다.

탁월한 시대감각 덕분에 그녀가 겪어야 했을 숱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야 간신히, 숨통이 트일 만큼 사회 저변 인식이 바뀌고 있다. 사이버 세계를 무한자유로 넘나드는 21세기형 인간~.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 그녀는 아직도 농경 사회 수준이다. 그렇다. 인간은 그렇게 '모순의 북을밥'인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녀의 사정을 알고 가끔 비웃는다.

"야, 너 하는 일은 최첨단인데 사는 것을 보면 완전 18세기 아날로그야."

"너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친구들의 말에 그녀는 호탕하게 웃어 웃었다. 하하하하 \* \* \*

인형의 집 노래처럼 과감하게 집을 뛰쳐나가 지도 못했고, 버지니아 울프처럼 감물에 자신을 빠뜨리지도 못했던 그녀. 그러나 사이버세계에 새로운 집을 만들어 자기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고 사는 그녀. 그녀야말로 21세기형 노라가 아닐까?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상의 지역경제 구심체로 거듭나야

차기회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으로 3개월 이상 계속돼 온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공백 사태가 해결됐다. 2명의 회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박홍서 럭키산업 대표가 26일 사퇴를 공식선언했기 때문

이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공인 간의 분열을 막기 위해 후보를 사퇴한다."라고 밝혔다. 광주상의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용퇴한 박 후보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박 후보의 사퇴로 광주상의 후임회장은 또 다른 후보인 이승기 삼능건설 대표가 맡게 됐다. 광주상의는 이 대표가 향후 1년3개월 동안 후임회장을 수행할 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 상의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임시 상공의원 총회를 열어 이 대표를 상의회장으로 추인할 계획이다.

광주상의는 지난해 3월 전임 회장의 부정선거 시비로 파행을 빚어 왔다. 법정소송과 6개월여 동안 회장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우여곡절 끝에 전임 회장

이 임기 3년의 절반만 채우기로 하고 지난 9월15일 사퇴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후임 회장을 경정이 아닌 합의추대로 선출하기로 했으나 박 후보와 이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회장 공백사태가 3개월 이상 이어져 온 것이다.

광주상의는 최근 회장 선출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상의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실체와 상의의 특성을 고려한 회장 선거 때마다 파벌 싸움으로 얼룩져서 회원 간 반목을 부추겨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많은 회원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광주상의가

광주상의는 회원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전면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광주상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역할을 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 경제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인수위 구성 '호남 배제' 유감스럽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예산 현황 등을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작업과 대통령 취임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새 정부의 기본 골격을 짜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당선자의 제1구 행정기가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이경숙 위원장과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 등은 당선자가 다니는 소망교회 신자다. 서울시장 재직 때의 '가신그룹' 상당수도 조직에 등용됐다.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당선자와의 친분을 우선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에서도 인수위 구성을 둘러싸고 말썽이 있었다. 인선이 잘못돼 실망을 준 사례도 없지 않다. 이번처럼 특정지역을 배제한 인수위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정한 인사가 국민통합,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제는 인수위 구성이 당선자의 첫 인사라는 점이다. 아무리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 중심의 실무체로 꾸렸지만 쓸쓸하다. 한나라당과 이 당선자측의 인재풀에 호남인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정치적 실'인 호남의 소외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 당선자의 제1구 행정기가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이경숙 위원장과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 등은 당선자가 다니는 소망교회 신자다. 서울시장 재직 때의 '가신그룹' 상당수도 조직에 등용됐다.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당선자와의 친분을 우선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에서도 인수위 구성을 둘러싸고 말썽이 있었다. 인선이 잘못돼 실망을 준 사례도 없지 않다. 이번처럼 특정지역을 배제한 인수위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정한 인사가 국민통합,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無等鼓

송년회(送年會)가 한창이다. 한 해를 보내며 1년 동안의 온갖 괴로움을 잊자며 직장 동료, 친구들과 술을 곁들여 갖는 송년 모임이 줄을 잇고 있다. 담담하게 음식점과 유흥가로 모처럼 호탕하다.

우리에게 망년회(忘年會)로 익숙한 송년 송수는 본래 일본에서 시작했다. 1천400여 년 전부터 일본에서 '한 해의 노고를 잊는다'(忘年)는 뜻으로 설날 그

를 술이 1년동안의 인간관계에서 흑역사였던 마음의 앙금을 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져 송년회에서 빠질 수 없다. 최근 젊은 층들은 가볍게 와인 잔을 기울이거나 간단한 이벤투로 송년회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 술은 1년동안의 인간관계에서 흑역사였던 마음의 앙금을 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져 송년회에서 빠질 수 없다. 최근 젊은 층들은 가볍게 와인 잔을 기울이거나 간단한 이벤투로 송년회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러나

송년회



우리나라의 연말 풍습으로는 '수세(守歲)가 있었다. 수세는 한 해를 마감하는 설날 그믐날 밤 방과 부엌, 마구간, 측간(화장실) 등 온 집안에 불을 켜놓고 조왕신의 하강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성스러운 행사였다.

우리 선조들은 부엌신인 조왕신이 1년 내내 집안 사람들의 선악을 낱알이 지켜보았다가 설날 스무나흘날 하늘에

송년회(送年會)가 한창이다. 한 해를 보내며 1년 동안의 온갖 괴로움을 잊자며 직장 동료, 친구들과 술을 곁들여 갖는 송년 모임이 줄을 잇고 있다. 담담하게 음식점과 유흥가로 모처럼 호탕하다.

우리에게 망년회(忘年會)로 익숙한 송년 송수는 본래 일본에서 시작했다. 1천400여 년 전부터 일본에서 '한 해의 노고를 잊는다'(忘年)는 뜻으로 설날 그

를 술이 1년동안의 인간관계에서 흑역사였던 마음의 앙금을 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져 송년회에서 빠질 수 없다. 최근 젊은 층들은 가볍게 와인 잔을 기울이거나 간단한 이벤투로 송년회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 술은 1년동안의 인간관계에서 흑역사였던 마음의 앙금을 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져 송년회에서 빠질 수 없다. 최근 젊은 층들은 가볍게 와인 잔을 기울이거나 간단한 이벤투로 송년회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고

양규호



고봉주



의로 칼럼

"전신 마취를 해서 치료 받는다고? 왜 그렇게까지 치료해야만 하는 건가?"

의외로 전신 마취를 한 뒤 치료 받는다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질환이 있어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불안 공포 때문에 치료 기피하는 환자, 자폐아처럼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어린이들은 일반적인 행동조절만으로는 치료 기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장애인과 비장애자인 어린이들은 심리적 행동조절법과 약물을 이용한 진정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

리 가지 검사가 이루어진다. 소아치과 의사는 주로 내과와 소아과 의사에게 입원 시 병력이나 신체검사 기록을 의뢰하며, 치과 외적인 의학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위임하게 된다. 또한 전신마취에 적합한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방사선 사진 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전신 마취는 주로 수술실 안에서 이루어지며 마취과 의사에 의해 전신 마취 후 치료가 시작된다. 주로 의사 및 보조 간호사, 마취과 의사를 포함해 5인 이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고

중세까지도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던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부(富)를 쌓고 그 축적된 부(富)를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물질 만능주의 팽배와 이기주의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급속한 산업화가 불러 온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산업화는 지방은 물론 한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인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을 통해 '영광에 대규모 지방산업단지 유치 확정'이라는 참으로 기쁘고 가슴 설레는 소식을 접했다. 우리나라

등 공해 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니 영광이 미래 부(富)의 척도라는 지식 정보화 사회를 통해 서해안시대를 주도하는 선진 지자체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해본다.

일부 군민들은 벌써부터 3만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지역발전의 호기와 함께 민선시대에 집중적으로 개발한 7대 관광지를 비롯한 아름다운 종교·문화와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청신호라며 반기고 있다.

지방세와 전기료 감면 혜택 등 입지 조건이 갖춰짐으로써 산업단지의 성공

330만㎡ 지방산업단지 유치, 영광이 뜬다

라가 세계 11위 무역대국으로 성장해 가는 동안 호남은 정치권의 외면과 출몰 속에서 1차 산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산업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수도권 등 특정지역과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

영광 역시 고도(孤島) 같은 원자력발전소 외에는 변변한 산업시설 하나 없는 전남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다. 앞으로 들어설 나주의 혁신도시와 무안의 기업도시 선정을 부러움 눈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영광 군민들에게 330만㎡(100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지방산업단지의 유치는 전남 북부권의 남보이다.

특히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이번 유치가 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갈 지식 정보화 산업단지라는 것이다. 굴곡산업으로 대변되던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에서 벗어나 자동차부품, 정보기술(IT), 바이오식품, 신 재생 에너지

적인 유치를 낙관할 수 있다는 것도 군민들을 들뜨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몇 해 전 영광군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찬반 문제로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격화되었던 아픈 과거가 있었다. 방법론의 문제가 있었을 뿐 지역발전의 염원을 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한결 같았다. 이제 2천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방산업단지 유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가 따른 반사이익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참치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군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담아 꼭 성공적인 산업단지 자리잡아 주기를 기원한다.

더불어 관련 중앙부처를 비롯한 전남도와 영광군에서는 지방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과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운동 영광군지회 사무국장>

자살 사고는 아예 보도하지 말았으면

신문을 펴면 여전히 자살 사고 기사가 자주 눈에 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한 연가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3조원을 넘고 2004년 자살자 수는 1만5천여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4명 꼴이었다고 한다.

이 숫자의 자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수입 상실 등 자살자의 간접비용 3조700억원, 진료비와 장례비 등 자살자의 직접비용 95억원, 그리고 가족이 지불하는 의료비와 교통비 등 외부적 직접비용 47억원, 가족

의 기회 노동력 손실 등 외부적 간접비용 10억원 등 총 3조9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죽은 인구가 부족해 인구 부족 대란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자살률까지 높아지는 건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모방범죄가 잇달 자살 보도를 들은 후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신문과 방송에서 일반인들의 자살 내용은 아예 보도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남보라·광양시 도이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온라인 경매 방식의 대출업체들이 아주 많다. 인터넷 대출경매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은 역경매 방식과 비슷하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신용도와 원하는 대출금, 대출이자 등 조건을 대출경매 사이트를 통해 내걸면 돈을 빌려주는 업체에서는 이에 대해 빌려줄 수 있는 금액과 이자 등 조건을 제시한다.

보급체의 검증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 사진은 물론 직업, 금융소득,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무리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개인의 성별, 나이, 거주지역, 신용등급, 희망대출액, 대출 사유 등이 버젓이 드러나게 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 더구나 이런 대출업체에 잘못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들은 나중에 일반 시중은행의 정상적인 대출이나 신용등급을 받을 때 마이너스 등급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강성구·광주시 동구 운림동>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浩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